

'3연승' 광주FC, 강릉서 상위권 도약 발판 이룰까

18일 강원과 K리그1 27라운드 강릉까지 450km 최장거리 원정 4위 포항에 승점 7점 차 맹추격 최초 준프로 김윤호 데뷔 주목



최근 리그에서 무실점 3연승을 달린 광주FC가 강릉 원정에서 상위권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달 21라운드 원정에서 0-2로 고배를 마셨던 강원 FC를 상대로 이번 원정에서 설욕전을 치르고 상위권과 격차를 더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는 오는 18일 오후 7시 강원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강원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리그와 코리아컵 준결승까지 15일간 다섯 경기의 강행군의 시작점에 다시 선 광주다.

광주는 지난 9일 전북현대모터스와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0 신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무실점 3연승, 코리아컵 8강을 포함하면 4연승으로 올 시즌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

중원에서 핵심 자원인 정호연의 공백을 메운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다. 정호연이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 정지로 결장한 가운데 문민서와 이강현, 이희균, 박태준, 최경록 등이 탄탄한 허리를 구축하면서 남은 경기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또 변준수가 복귀하면서 지난 시즌 최소 실점의 위용도 어느 정도 되찾아가는



광주FC가 오는 18일 오후 7시 강원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FC 아사니(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9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 겸 결승골을 터트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모양새다. 변준수와 안영규, 허을, 김정재 등이 중앙 수비로 호흡을 맞추면서 선수층이 두터워졌고 체력 안배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측면 공격과 수비 자원들도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기와 김진호 등 전문 수비 자원들 뿐만 아니라 안혁주와 아사니, 가브리엘, 이희균, 김한길 등 공격 자원들까지 측면 수비에 가담하면서 엄청난 활동량을 선보

이고 있다. 이 사이 광주는 12승 1무 13패(승점 37)로 순위는 7위로 변동이 없었지만 상위권과 격차를 차근차근 줄였다. 상위권 마지노선인 4위 포항스틸러스(12승 8무

6패·승점 44)를 7점 차로 추격했고, 1위 강원(14승 5무 7패·승점 47)도 10점 차로 따라붙었다.

이번 원정은 강원 원정 선수를 달리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은 이상현과 양민혁, 김정민 등을 앞세워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 중이고 김동현과 이우현, 김강국, 유인수 등이 버티는 중원도 탄탄하다.

또 김영빈과 강우지, 이기혁, 황문기, 송준석 등이 버티는 수비 역시 견고하고 수문장인 이광연은 단신임에도 뛰어난 반사 신경을 바탕으로 골문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다.

광주는 히든카드인 김윤호(금호고 2)를 언제 꺼내들지가 주목 대상이다. 지난 달 31일 광주와 계약을 체결하며 구단 사상 첫 준프로 선수가 된 김윤호는 최근 프로 팀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문민서, 안혁주와 함께 22세 이하 카드로 중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김윤호가 가세한다면 광주로서는 기본 좋은 고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아사니와 가브리엘, 베카, 신창무, 이건희 등 공격 자원들이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다.

광주는 이번 원정에서 공격 대 공격으로 화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 축구를 구사할 수 있지만 이진호 감독은 항상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흔드는 축구를 요구해 왔다. 광주가 화끈한 공격 축구로 리그 4연승과 함께 상위권과 격차를 더 줄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 수피아여고 농구부 선수들이 14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끝난 2024 한국중·고 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여고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피아여고 제공

광주 수피아여고, 주말리그 왕중왕전 준우승

결승서 숙명여고에 60-84 패 임연서 우수상·득점상 수상

광주 수피아여고 농구가 2024 한국중·고 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여고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수피아여고는 14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결승에서 숙명여고에 60-84로 2년 만의 우승컵 탈환에 실패했다.

수피아여고는 이번 대회 A조 조별리그에서 삼천포여고(86-54 승)와 청주여고(74-71 승), 온양여고(78-33 승)를 차례로 꺾고 3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동주여고를 81-63으로 물리친 수피아여고는 결승서 숙명여고를 만나 1쿼터 9-19, 2쿼터 19-26으로 고전하

며 전반을 28-45, 17점 뒤진 채 마쳤다. 3쿼터에선 센터 이가현(2년)과 가드 임연서(1년)의 활약에 힘입어 49-63으로 쫓아갔다. 하지만 4쿼터에서 상대 선수들의 고른 득점포에 다시 고전하며 승부를 뒤집는데 실패했다.

임연서는 대회 우수상과 득점상을 수상했다.

임연서는 이번 대회 5경기에서 134득점(경기당 평균 26.8점), 36리바운드(평균 7.2개), 22어시스트(평균 4.4개), 19스틸(평균 3.8개), 9블록슛(평균 1.8개)을 기록했다.

이가현은 5경기에서 92득점(평균 18.4점), 51리바운드(평균 10.2개), 23어시스트(평균 4.6개), 24스틸(평균 4.8개), 10블록슛(평균 2개)의 활약으로 수비상을 수상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고 체조 문건영, 문체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3관왕

안마·평행봉·철봉서 1위 광주체중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경양초 홍석류 마루 은메달

광주체고 체조부 문건영(3년·사진)이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체조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문건영은 지난 11-14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자 18세이하부에 출전해 안마와 평행봉, 철봉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문건영은 기계체조 안마 결승에서 13.567점을 획득,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평행봉과 철봉에서도 결승에서 각각 13.167점과 12.800점으로 각각 1위에 올라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송광중 성해인, kjga 회장배 전국학생골프선수권 우승

2라운드 합계 6언더파 138타

광주 송광중 성해인(3년·사진)이 제35회 kjga(한국중고등학교 골프 연맹) 회장배 전국중고등학교학생골프선수권대회 여자 중부 우승을 차지했다.

성해인은 지난 11일 전북 군산CC에서 끝난 대회 여중부에서 2라운드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성해인은 제19회 전남도지사배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



금3개(안마·평행봉·철봉)를 따낸 지난 해 50회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3관왕이다. 문건영은 이번 대회에선 6개 종목 중 안마, 링, 평행봉, 철봉 등 4개 종목만 출전했다. 지난 5월 아시아선수권대회 도마 결승에서 입은 발목 골절 부상 여파로 마루와 도마 등 2개 종목은 참가하지 않았다.

문건영은 "발목 상태가 거의 회복 단계이지만 아직은 100%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번 대회에선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발목 부상 회복과 재활을 꾸준히 실시해 올해 전국

체전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윤서·이서영(이상 3년)·송채연(2년)·박유빈·신윤아(이상 1년)로 구성된 광주체중 여자 체조부는 여자15세이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중은 도마 44.100점, 이단평행봉 25.800점, 안마 34.800점, 마루 38.600점을 각각 획득, 총 143.300점으로 1위 서울(총 176.200점)과 2위 울산(총 156.650점)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광주체육중이 이 대회 단체전에서 입상한 건 8년 만이다.

광주 경양초 홍석류(6년)는 14일 열린 여자12세이하부 마루에서 12.75점을 받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동환 기자



올렸다. 이번 대회에선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하며 본선 라운드에 진출한 성해인은 본선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성해인은 2라운드에서 1번홀 버디를 잡으며 좋은 출발을 보인 후 연속 파를 기록하다 7번홀에서 보기를 범했다.

이후 3연속 파 세이브를 하다 11번홀에서 버디를 낚았고 파 행진을 이어가다 16번홀과 17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뒤 마지막 18번홀을 파로 마무리했다.

성해인은 박효담(개양중 1년)과 동타를 기록했지만 대회 규정에 따라 백카운트에서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성해인은 이번 우승으로 중고연맹 랭킹 배점 100점을 추가해 총 180점을 쌓으면서 중고등학교 전체 랭킹 1위를 달렸다.

성해인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해 너무 기분이 좋다"며 "목표인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동환 기자